

##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을 읽고

안의숙 권사

“큰 교회 목회자로서 눈코 뜰 새없이 바쁜 생활, 번갈아 닥치는 일! 남을 위해 열심히 봉사, 헌신, 섬김의 일. 이런 일을 하면서 나의 삶은 고갈 상태가 되었고, 생명력 없는 나의 내면세계는 마치 홍수로 완전히 침수된 지하실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그것을 느끼던 날, 그 날을 벽에 부딪친 날이라고 표현하겠다.”

저자 Gordon McDonald 목사님의 이야기는 미국에 사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은가. 여선교회 회원으로 매주일 교인들의 친교를 위해 부엌에서 헤어날 수 없고, 가정에서는 한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교회에서는 성가대, 속장, 주일학교 교사, 성경공부 인도자로, 세상에서는 직장일, 비즈니스 운영 등 우리는 눈코 뜰 새 없이 살고있다. 내 삶을 뒤돌아보며 ‘어, 나도 저렇게 살고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내면세계의 질서”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책에서 주교자 하는 내면세계의 질서는 무엇인가? 나의 내면세계의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말한다. 그 일이 비록 작아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추구하는 내면세계의 질서는 삶의 내면을 철저하게 정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중독성이 강하고 파괴적인 신념과 원리들에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우리에게 나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말이다.

한 장이 끝날 때마다 더 깊이 생각해보는 난이 있고 질문들이 있어서 그 질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나를 정확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벗기는 작업을 통하여 나의 부끄러운 모습, 고쳐야 할 습관들, 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도움을 청하며, 주님과 깊은 교통을 느낄 수 있으면서, 이 책을 읽고난 후에는 정말 나 자신의 내면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내 안에 성령의 소육과 육체의 소육이 치열하게 전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싶다.

우리가 만족할만한 영적인 삶을 개발하려면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를 위해서 몸을 단련하듯이 훈련이라는 각도에서 영적 생활에 접근해야 한다. 이 훈련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할 것인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소시키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녹아야만 내 속의 깊은 내면세계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배 처소로 삼고 때로 거기로 물러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어떤 이는 좀더 많이, 어떤 이는 좀더 적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아신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해보는 것이다. 그 분은 오직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모두 각자 내면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외부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 바란다.

.....  
■ 안의숙 권사는 Peninsula-Delaware 연회 사회부장이자 여성국 한인 자문위원이며, 델라웨어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 주문은 [Mission Resource Center](#)로 ([책 주문방법](#) / [주문 양식](#))  
주문번호: # R1016 / 가격: \$18